

문화광장



양 건 건축학 박사-제주 공공건축가

제주경관 관리계획에서 '본다는 것'의 의미

로 경화되는 지질학적 과정을, 표토를 걷어내어 드러내는 제안이었다. 더불어 전시관과 부대시설의 건축은 해안 절벽 앞으로 돌출되게 앉혀서, 수십만 년 전 섬의 탄생과 연계된 대서사를 풀어놓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천연기념물의 형상변경 행위는 문화재청의 보수적인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수차례에 걸친 자문회의와 설계수정 끝에 최근 조건부 허가를 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는 문화재청의 경관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아마도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본다는 것'의 해석이 달라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때 '본다는 것'은 존버거(John Berger)의 이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망막을 통해 감지되는 일차적 인지에 더불어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한 인식이 총체적으로 작동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즉 설계안은 자연환

경의 아름다움을 보는 서정적 감상에 더해, 땅에 적응해 있는 서사적 풍경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된 것이다. 다른 또 하나의 변화는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개발과 보존의 이분법적 대립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공존의 가능성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문화재청 심의가 절대 보존이라는 대전제 안에서 개발과 보존의 경직된 프레임에 고수했다면, 금번의 심의는 보존의 범주 안에서 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태도와 해법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제주의 경관 관리에 연관된 각종 심의제도의 운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관을 본다는 것의 의미나 개발과 보존의 인식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는 이미 2009년에 다른 지역 보다 선도적인 '경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에 관련된 원론적 개념을 명확히 세

워놓고 있다. 제주 경관의 궁극적 목표 표를 '서사적 풍경의 구축'으로 천명하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그 땅 위에 제주민이 새겨놓은 삶의 흔적, 지문(地文)까지도 경관의 범주에 놓고 있다. 이렇듯 훌륭한 경관 관리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의 제도 시행은 정량적 규제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었다. 물론 정상적 기준이 유효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과 제도 시행 주체의 성숙한 해안이 전제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제는 변화할 때가 됐다.

올해 2021년은 경관법에 근거해 두 번째 경관 관리계획 재정비 영역이 진행 중이다. 그린뉴딜과 같은 시대변화를 경관계획에 담아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제주의 바람과 태양에서 비롯된 서사적 풍경에, 본다는 것의 의미를 더해 제주 경관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했으리라 기대한다.

사설

제주4·3 완전 해결 위한 발걸음 내딛다

마침내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염원이 이뤄졌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수형인이 무죄판결을 받고 외친 말이 떠오른다. 90을 넘긴 그는 "유재꽃이 피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4·3특별법 개정이 유효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과 제도 시행 주체의 성숙한 해안이 전제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제는 변화할 때가 됐다.

올해 2021년은 경관법에 근거해 두 번째 경관 관리계획 재정비 영역이 진행 중이다. 그린뉴딜과 같은 시대변화를 경관계획에 담아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제주의 바람과 태양에서 비롯된 서사적 풍경에, 본다는 것의 의미를 더해 제주 경관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했으리라 기대한다.

월 뒤 시행된다. 정부는 국회의 의결이 이뤄졌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수형인이 무죄판결을 받고 외친 말이 떠오른다. 90을 넘긴 그는 "유재꽃이 피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4·3특별법 개정이 유효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과 제도 시행 주체의 성숙한 해안이 전제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제는 변화할 때가 됐다.

올해 2021년은 경관법에 근거해 두 번째 경관 관리계획 재정비 영역이 진행 중이다. 그린뉴딜과 같은 시대변화를 경관계획에 담아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제주의 바람과 태양에서 비롯된 서사적 풍경에, 본다는 것의 의미를 더해 제주 경관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했으리라 기대한다.

올해 2021년은 경관법에 근거해 두 번째 경관 관리계획 재정비 영역이 진행 중이다. 그린뉴딜과 같은 시대변화를 경관계획에 담아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제주의 바람과 태양에서 비롯된 서사적 풍경에, 본다는 것의 의미를 더해 제주 경관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했으리라 기대한다.

경악할 '탐나는전' 불법환전, 일벌백계해야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일부 물자가 한 상인들의 불법환전에 의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고사직전의 지역경제를 살려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려 발행된 지역화폐가 정작 양극화 심화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탐나는전이 현재 발행 목표 500억원 규모의 절반인 250억원 가량 발행된데다 가맹점수도 3만1000개 수준에 달하며 나름 지역상권 살리기에 '힘'을 보태는 현실에 '잔물'을 끼얹는 작태다.

매우 은행에서 환전해 차익을 남기는 현금영수증을 의도적·지능적으로 저지른다는 얘기가. 문제의 심각성은 일부 상인들의 불법행위가 상인들 간에 공공연히 퍼진데다 지역화폐 사용도 확대추세에 있어 예상보다 넓게 퍼졌을 수 있다는 점이다. 탐나는전이 현재 발행 목표 500억원 규모의 절반인 250억원 가량 발행된데다 가맹점수도 3만1000개 수준에 달하며 나름 지역상권 살리기에 '힘'을 보태는 현실에 '잔물'을 끼얹는 작태다.

제주도가 지난 17~22일 유관기관 합동 조사를 통해 탐나는전 부정유통내역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6건의 불법행위 확인과 의심되는 2건의 환전내역 매출증빙 자료제출 요구에 나섰다. 불법사례 유형은 가맹점주가 지인·자녀 명의로 할인구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 또는 아내명의 사업장에서 남편이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한 사례 등이다. 가맹점주가 지인·가족 명의로 10% 할인구

매우 은행에서 환전해 차익을 남기는 현금영수증을 의도적·지능적으로 저지른다는 얘기가. 문제의 심각성은 일부 상인들의 불법행위가 상인들 간에 공공연히 퍼진데다 지역화폐 사용도 확대추세에 있어 예상보다 넓게 퍼졌을 수 있다는 점이다. 탐나는전이 현재 발행 목표 500억원 규모의 절반인 250억원 가량 발행된데다 가맹점수도 3만1000개 수준에 달하며 나름 지역상권 살리기에 '힘'을 보태는 현실에 '잔물'을 끼얹는 작태다.

열린마당

"아버지! 제주시 강 살아야 데쿠다"



고 권 필 서귀포시연합청년회장

서귀포를 떠났던 친구들은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들면서 고향인 서귀포로 돌아 오고 싶어한다. 그러나 제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침체돼 있는 경제와 빈약한 생활 인프라 등의 이유로 쉽게 돌아오지 못하고 포기하고 만다. 이런 악순환은 아직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는 지역 불균형 발전에서 기인된다. 그리고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는 이런 지역불균형 발전에 대한 서귀포시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 생각된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과 서귀포시를 비롯한 동부지역은 찬성이 많았으나 그 외 지역은 달랐다. 제2공항은 5조원 가까운 재원이 투입되는 제주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사

업이다. 서귀포시민은 이로 인한 막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해 왔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3조9619억 원(전국 6조 7266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 7960억 원(전국 2조7498억 원)이며, 고용효과는 3만7960명(전국 4만9619명), 취업유발효과는 3만9784명(전국 5만6326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2공항이 제주의 균형발전과 미래 세대의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될 것이라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는 서귀포시민의 찬성인 입장과는 다르게 나왔다. 서귀포시민들은 지금보다 좋은 교육 환경과 교통시설,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고 싶어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 하지만 지난 여론조사에 나타났듯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주민간의 서로의 입장 차이로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서귀포시민만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요즘들어 서귀포시의 우회도로 개설사업이나 제2공항 등 개발사업이 있을 때마다 주민들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제동이 걸리는 것만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도, 빗물 활용방안 연구 수년간 반복

결과 미활용 예산낭비 지적 ○...제주도가 빗물 활용방안 연구를 수년간 반복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대두.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을 통해 제주도 빗물 활용에 관한 정책연구(2004년), 빗물 활용에 관한 정책연구(2005년), 빗물 이용시설 설치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2006년), 빗물 이용시설 적정 규모 산정 방안 연구(2018년)를 진행한데 이어 올해는 '빗물이용시설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하기로 결정.

동안 입 밖에도 내지 못했던 억울함을 가진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4·3의 완전한 진실 규명을 위해 유족회 등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 이어 "제7차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시에 단 한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평화와 상생의 길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 이윤형기자

한 수자원 전문가는 "비슷한 용역 반복은 문제가 있다"며 "용역결과 미활용은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 고대로그자

이러한 악순환은 아직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는 지역 불균형 발전에서 기인된다. 그리고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는 이런 지역불균형 발전에 대한 서귀포시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 생각된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과 서귀포시를 비롯한 동부지역은 찬성이 많았으나 그 외 지역은 달랐다. 제2공항은 5조원 가까운 재원이 투입되는 제주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사

한 수자원 전문가는 "비슷한 용역 반복은 문제가 있다"며 "용역결과 미활용은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 고대로그자

"50만 제주시민과 함께 환영"

○...안동우 제주시장은 지난달 27일 4·3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50만 제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여 이뤄진 결과라고 강조. 그러면서 "4·3특별법 통과가 그

"4·3 희생자 누락없이 최선"

○...김태엽 서귀포시장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19만 서귀포시민과 열렬히 환영한다며 오는 6월까지 이뤄지는 희생자·유족에 대한 추가 신청에서 누락없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 김 시장은 지난달 27일 환영 메시지를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로 희생자·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우뚝 서길 기원.

이러한 악순환은 아직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는 지역 불균형 발전에서 기인된다. 그리고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는 이런 지역불균형 발전에 대한 서귀포시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 생각된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과 서귀포시를 비롯한 동부지역은 찬성이 많았으나 그 외 지역은 달랐다. 제2공항은 5조원 가까운 재원이 투입되는 제주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사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화순오공 원희(향년 92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3월 2일 아 들 오재천(요셉) 마느리 고문희(마리아) 재호(스티파노) 홍성실(베르나) 재진(알베르토) 이혜경(베르나) 재경(베드로) 강정림(요리아) 딸 오영숙 사 위 김병협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방부 남양홍공 광수(향년 80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3월 2일 아 들 흥기돈 마느리 김남연 기상 김지은 딸 흥은경 사 위 김주남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하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1~5년생)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하례조생, 미니향, 레몬, 탐라향 5년생(화분), 궁천,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값이 저렴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가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짐.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 18-2003-20-08 010-2699-2355